

그 많던 反美는 정말 사라졌을까

광화문·뷰



김 신 영
국제부장

루마니아 대통령 결선투표에서 적나라한 친(親)트럼프 노선을 내건 후보가 18일 역전패를 당했다. 최근 있었던 캐나다·호주 선거도 일방적 미국 우선주의에 대한 유권자 반감이 표출돼 트럼프에게 대항하겠다고 한 후보들이 당선됐다. 우방에까지 팬세를 막무가내로 올리는 트럼프의 최근 행태에 분노하는 이들이 많다는 의미다.

미국산 소고기 수입에 반발한 2008년 '광우병 시위' 당시 저녁 먹으러 갔다가 인파에 떠밀려 회사에 돌아오지 못했던 기억이 난다. 그만큼 거친 반미 시위였다. 광우병 공포는 결국 비과학적이었다고 판명이 났지만, 격렬한 반미 정서에 놀란 미 정부는 (광우병 감염 우려가 거의 없는) '30개월령 미만' 소고기만 수출하기로 했다. 트럼프는 요즘 이 소고기 수입 제한을 풀라고 공격하고 있다. 한국 무역 협상의 성역(聖域)으로 여겨져온 썰까지 '문을 열라'고 암박 중이다. 한국은 의외로 조용하다. 이쯤 되면 슬슬 고개를 들었어야 할 반미(反美)가 안 보인다.

과거 여리 차례 적나라한 반미 감정을 드러낸 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도 '미국과 잘 지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18일 토론회에서 과거 반미

발언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한미 동맹이 가장 중요하다"는 원칙적 답을 했다. 그는 불과 3년 전 사드에 대한 반감을 드러내며 "미국에서 무기 사들일 필요 없이 자체 기술로 자주 국방을 실현할 수 있다"고 책에 썼다. 성남시장 때인 2017년엔 "미군 철수를 각오하고 사드를 철회해야 한다"고도 했다. 틈만 나면 주한 미군 병력을 줄이겠다고 하는 트럼프가 솔깃할 얘기인데, 이 후보는 미국에 유화적 발언을 하면서도 과거 입장을 철회하거나 후회한다고 한 적이 없다.

이후보는 18일 토론회에서 미·중 가운데 선택해야 한다면 어떻게 하겠느

이재명 후보 외교·안보 원칙
"국익에 따라 실용적으로"
미·중 선택 압박 받는다면?
답하지 못할 이유 없지 않나

나는 질문을 받고 "(외교·안보는) 국익을 중심으로 실용적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일·중·러 모두 두와의 관계를 잘 관리해야 한다고 둥뚱그려 말했다. 이른바 '황희 정승식 외교'로, 미국과 중국이 역사상 가장 치열한 패권 경쟁을 벌이는 지금 같은 때엔 현실적인 계획이 아니다. 많은 전문가는 한국이 결국 미·중·러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순간이 곧 닥치리라고 예상한다. 이 후보의 진짜 계획은 무엇일까. 속을 알 수가 없다.

"국익을 지키기 위해선 미국과의 협

력뿐만 아니라 중국·일본 등 주변국과의 균형 있는 외교가 필요합니다." 이 후보의 최근 발언이 아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대선 캠페인 때 한 말이다. 문 전 대통령은 당선 후 결국 반미 정서가 강력한 집단인, 당내 '86세대'의 뜻대로 움직였다. 미국의 어떤 정권도 원치 않는 북핵 관련 대북 제재 완화를 주장해 미 정계에서 반발이 일었고, 미군의 전시작전권 조기 환수를 추진했다. 한미 연합 훈련은 축소·중단됐다. 유세 때 말한 '국익'과 '균형'은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정당화하는 단어로 용도가 바뀌었다. 문 정권의 핵심 인사 중 다수가 지금 이 후보 캠페인에서 일하고 있다.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반미 감정 확산에 불만이 커던 도널드 러스펠드 국방장관은 2004년 한국에 있는 여단 중 하나를 이라크에 보냈다. 이들은 돌아오지 않았다. 트럼프 정부의 당국자들은 이미 주한 미군의 역할을 '북한 억제'가 아닌 '중국 견제'로 전환해야 한다고 전략을 바꾸고 있다. 중국·대만 충돌 시 주한 미군을 빼서 중국 저지에 쓰겠단 얘기다. 주한 미군의 요격 미사일인 '페트리엇' 중 일부는 예멘과 싸우는 중동으로 벌써 보냈다. 다음 정권이 반미의 기침만 보여도 트럼프는 기꺼이 주한 미군을 줄일 것이다. 이 와중에 북한은 혈맹이 된 러시아로부터 무기와 전술을 빼앗기 습득하고 있다. '국익에 따라 실용적으로'를 넘어서는, 이재명 후보의 보다 명확한 입장이 궁금한 이유다.



작자 미상, '애버딘 베스티어리' 중 '별'에 대해서. 12세기 후반, 약 30.5×21cm, 양피지에 금박 및 인료, 영국 애버딘 대학교 도서관 소장.

별의 개체 수는 급격히 줄고 있다. 선한 왕과 성실한 백성도 무차별 살포하는 농약과 격렬한 기후변화에는 속수무책이다. 전 세계 주요 식량 식물의 약 70%가 별의 수분(受粉)에 의존해 생장한다고 한다. 그러니 별이 사라진 자리에 남는 건 텅 빈 골통만이 아니라 텅 빈 식탁이다.

포스텍 교수·서양미술사

우정아의 아트 스토리 [502]

오늘은 세계 별의 날

동근 별집 세 군데로 별들이 일사불란하게 날아 들어간다. 12세기 후반 잉글랜드 남부에서 제작해 17세기 중반 스코틀랜드의 애버딘 대학교 소장 품이 된 '애버딘 베스티어리'의 한 페이지이다. '베스티어리'란 중세 유럽에서 유행한 동물 우화집으로, 실제하는 동물과 상상 속 생물을 삽화와 함께 설명하고 교훈을 설파하는 기독교적 자연 도감이다.

'애버딘 베스티어리'에서 3페이지에 걸쳐 설명한 별의 세계는 모든 구성 원이 자발적으로 왕을 선택하고 그에게 충성하면서도 자유를 누리는 이상 사회다. 태고난 품격, 우월한 외양, 자비로운 성정을 바탕으로 선출된 왕은

5월 20일은 세계 별의 날이다. 사실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결코 복수를 위해 침을 쓰지 않는 절제력이 있다. 한 집에 모여 사는 별들은 정찰, 경비, 수확, 저장, 양육 등 다양한 임무를 분담하고 각자 맡은 역할을 정확히 수행한다. 그들은 다른 종의 노동을 착취하거나 폭력을 사용하지 않고, 규율을 어긴 별은 자발적으로 스스로를 처벌할 정도로 철저한 윤리의식을 가졌다. 게다가 중세인의 눈에 정확한 육각형 방들을 이어붙여 완벽한 구조물을 만들고, 이를 담고 향기로운 풍경 위를 날아다니며, 달콤한 꿀을 모아 인간에게 고루 선사하는 별의 노동이란 신의 뜻에 부합하는 고귀함을 갖췄다.

민주당은 19일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 재판장인 지귀연 판사가 유통업소에서 접대받았다는 자신의 의혹 제기를 뒷받침하는 근거라면서 사진 몇 장을 공개했다. 술집 내부 사진은 민주당이 최근 현장에서 찍은 것이고, 지 판사는 남성 2명과 찍은 사진도 있었다. 민주당은 동석자들에 대해 "법조 관계자라면 직무관련성이 인정된다"고 했다.

지 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민주당이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였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 이렇게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품살통에서 여러 번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품살통 접대 증거이며 사진을 공개했지만, 주 의원은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품살통 접대로 왜곡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였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 이렇게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품살통에서 여러 번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품살통 접대 증거이며 사진을 공개했지만, 주 의원은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품살통 접대로 왜곡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였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 이렇게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품살통에서 여러 번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품살통 접대 증거이며 사진을 공개했지만, 주 의원은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품살통 접대로 왜곡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였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 이렇게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품살통에서 여러 번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품살통 접대 증거이며 사진을 공개했지만, 주 의원은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품살통 접대로 왜곡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였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 이렇게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품살통에서 여러 번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품살통 접대 증거이며 사진을 공개했지만, 주 의원은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품살통 접대로 왜곡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였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 이렇게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품살통에서 여러 번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품살통 접대 증거이며 사진을 공개했지만, 주 의원은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품살통 접대로 왜곡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였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 이렇게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품살통에서 여러 번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품살통 접대 증거이며 사진을 공개했지만, 주 의원은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품살통 접대로 왜곡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였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 이렇게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품살통에서 여러 번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품살통 접대 증거이며 사진을 공개했지만, 주 의원은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품살통 접대로 왜곡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였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 이렇게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품살통에서 여러 번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품살통 접대 증거이며 사진을 공개했지만, 주 의원은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품살통 접대로 왜곡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였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 이렇게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품살통에서 여러 번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품살통 접대 증거이며 사진을 공개했지만, 주 의원은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품살통 접대로 왜곡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였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 목적의 공격이 이렇게 이뤄진다. 민주당 의원들은 지 판사 실명을 거론하면서 품살통에서 여러 번 접대를 받은 의혹이 있다며 지 판사를 윤 전 대통령 재판에서 배제하라고 요구했다. 이와 별개로 한 유튜브 채널은 최근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의 품살통 접대 증거이며 사진을 공개했지만, 주 의원은 "선배 부부의 생일 파티 사진을 품살통 접대로 왜곡했다"며 이들을 고발했다.

판사는 이날 오전 윤 전 대통령 재판에 앞서 "개인에 대한 의혹 제기에 걱정이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만, 평소 삼겹살에 소주를 마시며 지내고 있다"며 "의혹 제기 내용은 사실이 아니고 그런 데서 접대받는 건 생각해본 적 없다"며 부인했다.

민주당은 접대 의혹을 처음 제기한 것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였다. 국회에서 의혹을 제기하면 허위로 판명 나더라도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아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는다. 주로 정치적 목적의